



##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활동 전개

- 베트남, 터키를 대상으로 -



이용석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담당관

### I. 서론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수요 및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국내 방송통신사업자는 내수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업자의 글로벌 마케팅 경험 부족, 진출국 정보 부족 및 통신규제 불투명성 등이 해외 진출 활성화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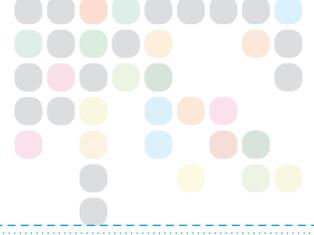
또한, 방송통신 융합은 사업자, 네트워크, 콘텐츠, 단말기,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해외 주요 관련기업은 제휴·인수·합병 등을 통해 방송·신문 등 전통 미디어와 통신 인터넷 분야 등을 넘나들면서 수평, 수직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미디어그룹<sup>1)</sup>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내 방송통신기업이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하에 개별 사업자의 투자 및 해외진출 시도와 정부, 유관기관 등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지속적인 해외진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융합화 및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중장기 전략 수립, 방송통신융합 신기술 비즈니스 포럼 및 미디어 협력 포럼 개최, TV 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및 참가 등을 통한 방송통신사업자 해외진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3월 새롭게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방송통신 민·관 협력단을 파견하여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베트남과 터키에서 전개한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정기간 협력 활동과 국내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타임워너, 뉴스코퍼레이션그룹, 비아콤, 소니, 디즈니, 비방디, AT&T, Verizon, SoftBank 등





## II. 본론

### 1. 베트남에서의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 가. 한·베트남 방송통신 차관급 회담

2008년 6월 26일, 베트남 정보통신부(하노이)에서 송도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또 귀썩안(Do Quy Doan) 정통부 차관과 회담을 갖고 방송통신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 부위원장은 국내 통신사업자가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 등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유사성을 강조하고, 방송교류를 통해 양국간 이해와 상호 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베간 방송협력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베트남 또 귀 썩안 차관은 현재 베트남TV에서는 베트남드라마보다 한국드라마가 더 많이 방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드라마의 흥미진진한 전개구도와 해피엔딩으로 흐르는 이야기 구성이 베트남 국민들을 사로잡는 주요 요인으로 본다며 한국과 공동제작 등을 통한 방송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날 면담을 통해 양국은 작년 8월과 올해 3월에 각각 새롭게 출범한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배경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였고, 인터넷상에서 해킹 등 위협요소와 개인정보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송 부위원장은 모바일 TV방송표준으로 기존의 DVB-H방식 이외에 T-DMB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정부에 대해 한국의 독자기술로 개발한 T-DMB의 우수성과 서비스 현황을 설명하고 베트남 모바일 TV방송표준으로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한국의 T-DMB 도입, 국내기업의 베트남 투자여건 개선 등 우리측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거쳐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한-베트남



한-베트남 차관급 회담



T-DMB 단말기 증정 기념 촬영



간 우호적인 정부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나. 한국-베트남 미디어 협력포럼 및 TV 콘텐츠 쇼케이스

이해 6월 27일부터 이틀간 호치민 뉴월드 호텔 사이공에서 개최된 한-베 미디어 협력포럼 및 TV방송 콘텐츠 쇼케이스 행사는 VTV 등 베트남 주요 방송사를 비롯한 250여명의 방송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글로벌 사회에서는 상호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동반자 관계가 중요하며, 21세기 최고의 산업으로 각광받는 콘텐츠 산업분야에서 양국의 동반성장을 꾀하자”는 송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한-베 미디어 협력포럼에서 양국의 방송관계 전문가들은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콘텐츠 교류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국내 지상파 방송 4사 및 6개 PP<sup>2)</sup>가 참가하여 이틀간 열린 방송콘텐츠 거래 상담회는 한류의 거점인 베트남 시장 진출을 더욱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쇼케이스에서 91만 불<sup>3)</sup> 이상의 콘텐츠 판매계약이 성사되었다. 특히 EBS 프로그램의 베트남 신규 진출, PP 콘텐츠의 수출 증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YTN은 국내 최초로 뉴스 프로그램을 베트남 시장에 진출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콘텐츠 수출 외에도 프로그램 포맷 판매, 채널 진출, 공동제작 등에 대한 협의도 활발히 추진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베 미디어 포럼 개최식 축하 장면



TV 콘텐츠 쇼케이스 행사 모습

- 2) 지상파방송사업자(4) : KBS, MBC, SBS, EBS  
방송채널사용사업자(6) : CJ미디어, 온미디어, YTN, M-net, CUaleldj, MBC Plus
- 3) 지상파 방송사업자 : \$680,000,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236,600

## 2. 터키에서의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 가. 한-터키 방송통신 융합 포럼

현재 7,500만명에 달하는 전체 국민의 평균 연령이 30세 전후이며 인구의 47%가 25세 이하



로 청년층 비율이 높은 터키는 Mobile Wimax 서비스 관련 사업권 발급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WiBro 기업의 현지진출 가능성이 높다. 또한 IPTV 분야에서도 Turk Telecom이 금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최근 터키 주요기업들이 사업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터키정부의 EU가입 추진 및 인프라 확충으로 동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IPTV관련 터키시장 진출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6월 30일에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과 터키 기업연합(TUSKON) 공동주관으로 방송통신융합 신기술(WiBro, IPTV 등)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삼성전자, POSDATA, KT, 삼성 SDS 등 민간기업과 KISA, ETRI 등의 유관기관이 참석하고 터키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Mobile WiMax, IPTV,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사업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금번 한-터키 방송통신융합기술 포럼과 시연회에는 Turk Telecom, Turkcell 등 터키의 주요 ICT 기업에서 25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터키 주요기업들이 사업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Mobile WiMax, IPTV 분야에서 30여개 기업과 개별 투자를 비롯한 관련 장비 및 솔루션 판매 상담회가 이루어졌다.



한-터키 방송통신융합 포럼 개최식 축사 장면



방송통신융합기술 시연회 참관 장면

## 나. 한·터키 차관 회담

2008년 7월 1일, 송도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터키 Davut Dursun 방송통신위<sup>4)</sup> 부위원장과 이스탄불 프라자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방송통신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송부위원장은 한국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기존의 정보통신부



한-터키 차관급 회담 장면

4) RTÜK-The Radil and Television Supreme Council

와 민간기관인 방송위원회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배경을 설명하고 위원회 운영방식, 방송사업자 진입규제, 프로그램 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 등을 설명하였다.

터키 Davut Dursun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은 터키는 디지털 방송 전환 시점을 유럽 속도에 맞추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이 디지털 전환이 느리며, 터키도 아직 아날로그 방송이 대부분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IPTV가 아직은 본격 개시 되지 않았지만 터키 통신기업 및 방송기업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IPTV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터키 Davut Dursun 부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에서 기술력은 매우 중요하고 한국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므로 한국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등을 기대하며 터키-EU 국가간 교류 수준으로 한국과의 활발한 협력관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방송통신융합 기술 및 방송 콘텐츠의 민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한-터키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다. 터키 유력 언론의 관심

터키 언론은 세계적으로 앞선 한국의 IT 대기업이 투자와 터키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이스탄불을 찾은 데 대해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터키의 유력 민영방송사인 S-TV와 3대 신문사의 하나인 Zaman은 방송통신융합기술 비즈니스 포럼과 투자 상담회를 취재하여 “첨단기술에 대한 터키의 관심이 한국 IT 대기업들의 터키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라는 제호로 연이어 보도하고 한국의 민·관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한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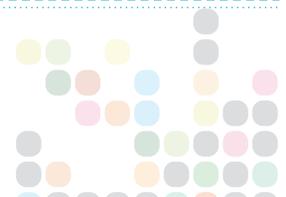
터키 언론에서는 2009년 터키에서 상용화 예정인 IPTV 기술과 한국 기업에 관심을 집중하며, IPTV 기술을 통해서 지나간 영화, 방송프로그램, 축구경기를 휴대폰 등으로 원하는 시간에 볼수 있는 모바일 IPTV의 등장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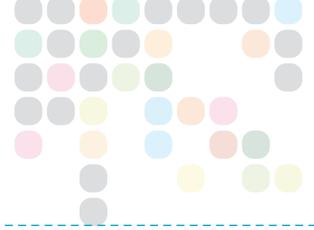


터키 S-TV 인터뷰 장면



Zaman 신문사 인터뷰 장면





송부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터키에 온 목적을 방송통신 및 IT분야에 터키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우수한 한국 기술을 터키에 소개하는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또한, 지리적인 호조건과 풍부한 인력자원들이 밑바탕이 된 터키가 방송통신 산업분야에서 한-터키간 협력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며 터키는 TV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방송-전화-인터넷-컴퓨터가 융합된 IPTV 기술이 터키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 III. 결론

베트남은 IT산업 연평균 성장률이 30%를 웃돌고 정부중심의 IT개발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시아 한류 거점국인 베트남에서 국내 방송콘텐츠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것은 인근 국가로의 우리 방송콘텐츠 진출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동서양을 잇는 터키는 이슬람권인 이란 등 중동지역과 우즈베크, 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시아 자원국가, 러시아 그리고 EU로 향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 터키 방문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와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베트남, 터키의 방송통신 대표단의 방문 성과를 계기로 실질적인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로 결실을 맺기 위해 현지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송통신융합 워킹그룹을 운영하거나 WiBro, IPTV 서비스 도입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터키 차관급 회담시 터키측이 제안한 방송분야 공동 포럼 제안에 대해서는 터키 방송사들의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여 한-터키 방송분야 교류사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KTOA

